



호심곡은 「군인」 아들, 비스토 당첨!

대학 1학년년을 마치고 군에 들어간 신정수씨는 4남매의 막내로 부모님에게는 항상 어전으로 비치는 아들이었다.

어전에를 뭉가에 혼자 내보내는 신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군에 보냈는데 겉게 그을린 모습으로 휴가를 나오다니 기특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2학년이나 끝마치고 가라고 했지만 「매도 빨리 닳는 것이 낫다」며 재빠르게 입대신청을 하는 아들이 쉽기까지 했었다. 어렸을 적부터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막내지만 큰 뜻은 항상 부모님 의견에 따라온지나 군대건도 크게 걱정은 안했지마 예상은 뒤엎고 기어이 군에 간 것이다.

휴가 온 첫 날, 손톱 밑에 낀 때를 보며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셨지만 굽상하기만 했던 손이 두툼해진 걸 보고 「이제 서야 남자 손 같구나」라며 연신 쓰다듬었다.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신씨는 군생활을 너무도 훌륭히 완수하고 있었

다. 운 좋게도 운전병으로 빠져 남들보다는 덜 뺑뺑이(?)을 치는 편에 속했고 이전 그의 군생활을 낱알이 어머니에게 말쑥드려도 당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마음이 놓일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휴가에서 신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자신이 아닌 딸 곳으로 돌려놓고 말 편히 군에 들어갔다. 다름 아니라 비스토에 당첨된 복권을 어머니에게 주고 온 것이다.

「휴가 온 날 슈퍼에서 복권이 눈에 띄어 3장 샀는데 한 장이 자동차에 당첨됐어요. 돈이 아니라 자동차인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얼떨떨 하더라구요」

집에도 아버지가 타시는 차가 있긴 하지만 항상 집에갈 계시는 어머니께서 운전면허도 있으시고, 차가 있다면 나들이고 많이 가실거고 그러면 군에갈 막내아들 걱정도 덜 하시리란 생각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